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Covid-19 trade shock 'worst for 35 years' but bottom may be passing, says Clarksons

영국 해운조사기관 Clarksons의 조사에 따르면, COVID-19가 야기한 해상교역량 감소가 최근 35년 중 가장 심각했으나 바닥은 지났다고 보도됨. 올해 해상 교역량은 당초 예상치 대비 10억톤가량 하회할 전망이다며 5월 누적기준으로 전년대비 -10.6% 하회했다고 보도됨. (TradeWinds)

Paradigm shift for oil sector

COVID-19 팬데믹 사태는 Oil과 Gas 섹터 내 근본적인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고 보도됨. Oil업체는 수요 급감, 가격 하락, 배당 감축, 자산 가치 하락 등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도됨. 이번 주 Shell사는 220억달러 규모의 자산가치 하락을 예고 했으며, BP는 175억달러 규모의 자산가치 하락을 발표했다고 알려짐. (Upstream)

Chesapeake weighs up options with Chapter 11

미국 Shale의 선구자였던 Chesapeake Energy가 Chapter11(파산보호신청) 이후 자사의 미래 사업가치를 평가하고 있다고 보도됨. 현재 회사는 90억달러 규모의 채무와 COVID-19 영향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으나 이번주 발표를 통해 올해 안에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의지를 밝힘. (Upstream)

Flex LNG expects September US LNG cargo cancellations to slow

Flex LNG는 미국 LNG 화물 계약 취소가 9월부터는 감소세로 전환할 전망이라고 발표함. 4월부터 8월까지 약 130개의 LNG 화물 계약이 취소됐다고 알려짐. 참고로 9월 계약분에 대한 화주의 취소 결정 기한은 7월 20일까지라고 보도됨. (TradeWinds)

More pain for dry bulk as Japan plans to shut 100 power plants

일본 정부가 국내 노후된 석탄화력발전소들을 90% 가량 감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함.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도됨. 현재 일본에는 1990년 이전에 준공된 석탄화력발전소가 114개가 있으며 이중 약 100개의 발전소가 폐쇄될 예정이라고 알려짐. (TradeWinds)

두산솔루스, 결국 스카이레이크 품으로

업계에 따르면 두산그룹이 스카이레이크와 두산솔루스 매각을 위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도됨. (주)두산을 비롯해 대주주가 보유한 지분 61% 전량 매각이 유력하다고 보도됨. 해당 지분의 매각 가격은 7,000억원대로 전해진다고 알려짐. (서울경제)